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각종 시찰, 홈스테이, 대학방문 등을 통한 교류, 특강 청강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104 명
 파견 (오프라인) : 일본의 대학생 등 104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경기도 성남시 104 명
 파견 (오프라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파주시 104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

2 월 28 일 (토)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특강 청강

■ 방한 프로그램 :

3 월 11 일 (수) 인천국제공항 입국

3 월 12 일 (목) 오리엔테이션, **【기업방문】**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 **【예방】**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특강】** "일본의 외교전략과 일한관계",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3 월 13 일 (금)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시찰】** 북촌한옥마을, **【문화체험】** 한지 만들기, **【시찰】** 서울시청

3 월 14 일 (토) **【시찰】** DMZ (임진각,통일대교,제 3 땅굴,도라전망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사동

3 월 15 일 (일) **【시찰】** 전쟁기념관, **【문화체험】** 한복, **【시찰】** 경복궁

3 월 16 일 (월)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특강·문화체험】** 한글 캘리그래피,성과보고회

3 월 17 일 (화) 인천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6 년 3 월 12 일 【기업방문】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



2026 년 3 월 12 일 【특강】 "일본의 외교전략과 일한관계"



2026 년 3 월 12 일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6 년 3 월 13 일 【학교방문/교류】 동국대학교



2026 년 3 월 14 일 【시찰】 DMZ



2026 년 3 월 15 일 【시찰】 전쟁기념관



2026 년 3 월 16 일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2026 년 3 월 16 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 소감 (발체)

◆ 일본 대학생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6.25 전쟁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설명을 접하는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감각과 함께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각에서 역사를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환경의 풍요로움을 새삼 실감하는 동시에 여전히 생명의 위험과 맞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의 무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 일본 대학생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갖는 것의 중요성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관점이 생겨났는지를 그 배경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국가라는 큰 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느꼈다.

◆ 일본 대학생

동국대학교 교류에서는 병역 제도나 남북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나오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또래들의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입장과 국가에 따라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고,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현지를 방문해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움의 크기를 실감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되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 일본 대학생

한국은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라고 느꼈다. 전쟁기념관이나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서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배우면서 한국은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이를 발판 삼아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자세가 바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4. 한국 측 소감 (발체)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연수 과정 중 양국의 대학생들이 즐겁게 교류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점차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양국의 협력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 방문학교 관계자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순간이 많고, 익숙한 생활 방식이나 비슷한 정서 등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거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끼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시작된 작은 대화와 우정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따뜻하게 데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p>2026년 3월 12일 (Instagram : 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 방문) (발체)삼성이노베이션유지엄에서의 시를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려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협력 관계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배우며, 한일 기업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 온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협력 관계가 있었기에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 혁신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p>	<p>2026년3월14일 (note : DMZ 방문) (발체)DMZ에 다녀왔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실제로 북한을 내려다볼 수 있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지대를 한 걸음만 넘어가도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달라지며, 그곳이 여전히 긴장이 지속되는 분단의 현장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땅굴에 들어가 당시의 현장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종전’상태가 아니라 단지 휴전 상태라는 것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p>
 <p>방한단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해왔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한국어로 직접 대화하면서, 언어를 통해 마음이 이어진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2026년3월17일 (Instagram : 방한단 소감)</p>	<p>2026년3월18일 (LinkedIn : 방한단 소감)</p>

(발체) 지금까지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해왔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를 통해 마음이 통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여,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체) 예전부터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지내면서 우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출발 전에는 나름대로 한국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지 학생들과의 대화와 홈스테이를 통해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한 우정은 ‘그곳에 직접 발을 디디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대화에 기반한 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6. 보고회에서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파주시)

<p>訪韓中 学んだ/感じたこと</p> <p>① 歴史を多角的に捉える重要性 DMZでの重く訪れた緊張感や、博物館での展示を通じ、日本とは異なる「韓国側の視点」に直接触れた。 → 一方向の視点でなく、相手国の歴史をどう記憶し語り継いでいるかを受け止めることが、真の相互理解の第一歩だと痛感した。</p> <p>② 韓国の伝統と発展 景福宮に取り入れられる階層五行説や十二支などから、自国の伝統と哲学を守り継ぐ人々の強い意志を感じた。 → 一で、サムスン等に象徴される競争の激しさや技術吸収の速さを知り、伝統と発展が共存する社会の現状を驚かされた。</p> <p>③ 歴史的背景を越えた交流 歴史認識の壁に対する連続前年の不安は、ホームステイや現地での学生との遠く率直な対話によって払拭された。 政治的な困難があっても、対立点ではなく共通点を見出し、民間レベルで関係を築くことが、日韓の共通課題を乗り越える基盤になると確信した。</p> <p>アクションプラン</p> <p>歴史の体系的な学習 ・行動：韓国の歴史に関する学術的な書籍を2冊読み込む。 ・目的：訪韓で肌で感じた「現地視点」を客観的な知識として補強し、自身の歴史への理解をさらに深める。</p> <p>noteでの総括記事の発信 ・行動：書籍から得た知見と、訪韓中7日間のnoteの記録を組み合わせて、自身の考察をまとめた総括記事を公開する。 ・目的：個人の経験で終わらせず、読者に対してアジアの現実と日韓の可能性について考える契機を提供し、問題解決の一助とする。</p>	<p>①訪韓中に学んだこと</p> <p>韓国における独立や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の重要性と、日本における韓国併合の重要性の認識の差が顕著なと感じた。日本の歴史の授業では、韓国併合について詳しく触れ下ることが少ない。韓国では日本の占領下の時代や歴史、歴史の中の事象の部分として捉えており、博物館の展示や、ソウル市庁舎のポスターからもその強い認識を感じた。そのため、韓国側から見た日本は入植者としてのイメージが強いが、日本側から見た韓国はMHOや韓国コスメなど文化的イメージが強いと考えられる。この双方のイメージに対する認識の差は、互いに建設的な対話を実現するのを妨げ、歴史認識に関して前進できない状況を作り出す。こ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まずは自分の両面から韓国に対しての歴史認識を深め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考えた。今回の訪韓で学んだ韓国側から見た歴史を、noteを通じて発信することで、日本人の心に韓国に対する文化的な理解だけでなく、歴史的な理解を促進し、日韓関係の向上に繋がっていきたい。</p> <p>②アクションプラン</p> <p>4月 → 6-6・7月 → 8月~</p> <p>【4月】 ・noteの作成 ・大韓民国歴史博物館やDMZなどに関する日本語のWeb情報が少なかつたため、それらの情報について詳しく知ることで歴史を繋げる窓口の情報を集める。 ・大学4年への就職許可 → 就職先と自身の進路の両方について検討可能なよう ・韓国側への訪問許可 → 韓国訪問についての情報を得ることで事前準備に韓国について深く理解する。</p> <p>【5・6・7月】 ・noteの公開 ・大学4年へ就職</p> <p>【8月~】 ・自身のnoteをもとに訪問地や韓国の知識を補ったり、韓国について日本の側から対話が可能になる。</p>
<p>【방한 중의 배움】</p> <p>·DMZ의 팽팽한 긴장감과 박물관 전시를 통해 일본과는 다른 ‘한국 측의 시각’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상대국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전승해 왔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상호 이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p> <p>·경복궁에 반영된 음양오행설이나 십이지신 등에서, 자국의 전통과 철학을 지키고 계승하려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 한편, 삼성 등에서 보여지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 흡수 속</p>	<p>【방한 중의 배움】</p> <p>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인식 차이가 과제라고 느꼈다. 양측의 인식 차이는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과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내 주변부터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을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한국 측의 시각을 note를 통해 발신함으로써,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 뿐만 아니라 역사</p>

<p>도를 알게 되어 전통과 발전이 공존하는 사회의 현상을 실감했다.</p> <p>·역사 인식의 장벽에 대한 출국 전의 불안은 홈스테이와 현지 학생들과의 따뜻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소되었다. 정치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립점이 아닌 공통점을 찾아 민간 차원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를 극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p> <p>【액션 플랜】</p> <p>·방한 기간 동안 몸소 느낀 ‘현지인의 시각’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보강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한국사에 관한 학술서적을 정독할 것이다.</p> <p>·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아시아의 현실과 한일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서적에서 얻은 통찰과 방한 7일간의 note 기록을 합하여 자신의 고찰을 정리한 종합 기사를 공개할 것이다.</p>	<p>적 이해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다.</p> <p>【액션 플랜】</p> <p>·note 작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DMZ 등에 관한 일본어 웹 정보가 부족했으므로, 해당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여 한국을 알리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할 정보를 발신할 것이다.</p> <p>·대학 홈페이지 게재: 학생과와 상담하여 이번 연수에 대한 게재 허가를 협의할 것이다.</p> <p>·한국개발정치론 수강: 한국 정치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여 학술적으로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것이다.</p>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